

1. 다음 중 문학의 분류로 옳은 것은?

- ① 서정문학: 향가, 몽유록, 고대가요
- ② 서사문학: 전설, 사설시조, 판소리 사설
- ③ 극문학: 탈춤, 인형극, 경기체가
- ④ 교술문학: 수필, 편지, 기행문

정답: ④

① 몽유록은 꿈속에서의 일을 소설 속에 구성한 소설의 한 종류이므로 서사문학에 속한다.
→ 서정문학: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서정민요, 시조 (평시조, 엽시조, 사설시조), 현대시

② 사설시조는 서정문학에 속한다.

→ 서사문학: 서사민요, 서사무가, 설화(민담, 전설, 신화), 고전소설, 현대소설, 판소리 사설 (판소리 사설은 근원설화를 시작으로 판소리를 거쳐 문자로 정착된 후 소설로 읽혔기 때문에 서사문학에 속한다.)

③ 경기체가는 운율과 분절체 사용 등 시문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심미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신흥사대부들의 자만심 표출이나 신념 등을 표현하는 내용 등이 담겨 교술 문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는 서사 문학에 속한다.

→ 극문학: 탈춤, 인형극, 탈춤, 신파극, 현대극

④ 어떤 사건이나 경험으로 인한 깨달음, 감동 등을 쓴 글들을 교술문학이라고 한다.

→ 교술문학: 수필, 일기, 편지, 기행문, 경기체가

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형태소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에 돌아온 날 밤

- ① 형태소의 개수는 모두 8개이다.
- ② 의존형태소의 개수는 3개이다.
- ③ 자립형태소 개수는 3개이다.
- ④ 실질형태소 개수는 5개이다.

정답: ②

① 형태소의 개수는 모두 8개이다. ⇒ 집, 예, 돌-, -아, 오-, -ㄴ, 날, 밤

② 의존 형태소의 개수는 3개이다. ⇒ 예, 돌-, -아, 오-, -ㄴ (5개)

③ 자립 형태소 개수는 3개이다. ⇒ 집, 날, 밤

④ 실질 형태소 개수는 5개이다. ⇒ 집, 돌-, 오-, 날, 밤

3. 다음 보기의 시문에 없는 사자성어를 고르시오?

금으로 된 술잔의 좋은 술은 수많은 백성의 피요, 옥으로 된 쟁반의 좋은 안주는 수많은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금준미주(金樽美酒) 천인혈(千人血)

옥반가효(玉盤佳肴) 만성고(萬姓膏)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

-춘향전 중에서

- ① 이 시의 주제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다.
- ② 관리들의 학정은 정말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노릇이다.
- ③ ‘도탄지고(塗炭之苦)’에 빠진 백성들의 고통이 나타나 있다.
- ④ 위정자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정답: ①

- ① 권선징악(勸善懲惡): 착한 것은 원하고, 악한 것은 벌을 받는다.

⇒ 「춘향전」소설의 주제로는 적절하지만, 문제에서는 시문의 주제만 물어보았다. 시문에
는 관리들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만 나타날 뿐 복을 받고, 벌을 받는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 ② 천인공노(天人共怒): 하늘과 사람 모두 분노하다
- ③ 도탄지고(塗炭之苦): 진흙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고통
- ④ 가렴주구(苛斂誅求): 가혹하게 세금을 걷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다

4. 다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도 명의 군인이 나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 ㉡오래된 친구는 때론 형제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 줄래?

- ① 관형사 - 형용사 - 명사
- ② 관형사 - 형용사 - 대명사
- ③ 수사 - 관형사 - 대명사
- ④ 수사 - 형용사 - 대명사

정답: ②

- ㉠ 두 명 ⇒ ‘두’는 뒤에 오는 ‘명’을 꾸며주는 수관형사이다. 수관형사와 수사는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 하나다. 쉽게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두, 세, 네’는 관형사이고, ‘하나, 둘, 셋, 넷’은 수사이다. 형태가 다르다. ‘다섯’부터는 형태가 같으므로, 뒤에 조사를 붙여보자.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면 수관형사,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수사이다.
- ㉡ 오래된 친구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품사로는 형용사이고, 문장의 성분(문장 안에서 단어가 어떤 성분으로 쓰였는지 따짐)으로는 관형어이다. 품사 문제와 문장의 성분 문제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 ㉢ 그것을 ⇒ 이것, 저것, 그것 등은 지시 대명사이다. ‘이, 그 저’ 등의 관형사와 헷갈린다면, 뒤에 조사를 넣어 본다. ‘이는, 그는, 저는’ 등은 대명사. ‘이 사람, 그 일, 저 동물’ 등 단어들 사이에 조사를 넣을 수 없다면 관형사이다.

5.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부모님의 의견을 쫓기로 했다.
황소가 꼬리를 흔들어 등의 파리를 쫓았다.
- ㉡ 옷매무새를 반듯이 하여라.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만 해.
- ㉢ 이따가 나랑 영화 보러 갈래?
그렇게 한숨 쉬다간 복이 있다가도 없어지겠다.
- ㉣ 그는 물가로 가서 두 손을 짚고 꿈무니를 하늘로 치켜들었다.
꿈지 빠진 새 모양으로 구석에서 왜 그러고 있어?

정답: ①

- ㉠ **쫓다**: 대상을 추격하다 또는 물리치다, **쫓다**: 의견, 이상, 이념 등을 따르다.
- ㉡ **반듯이**: ‘반듯하다’의 부사형, **반드시**: 꼭, 필히
- ㉢ **이따가**: 나중에, **있다가**: 형용사 ‘있다’, 존재하다
- ㉣ **꿈무니**: 엉덩이를 기준으로 몸통의 뒤, **꿈지**: 날짐승의 꼬리 깃털

6. 다음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동안 이웃을 위해 산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 분의 슬픔이었고
이 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 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 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 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 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 때 누군가 그 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 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명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 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 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은 실신했다.
 그 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기형도, 홀린사람

- ① 위선적으로 포장된 이미지로 '이분'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군중'은 대중심리에 의해 이성을 상실하고 권력자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 ③ '목소리'는 대중에 동조하지 않고 '그분'을 의심하는 비판적 인물이다.
- ④ 다양성을 추구하려면 '사회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 ④

- ① 위선적으로 포장된 이미지로 '이분'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 '사회자'는 '그분'에게 홀린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그분'의 이미지를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으로 포장하여, 대중을 홀리고 있다.
- ② '군중'은 대중심리에 의해 이성을 상실하고 권력자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 '군중'은 '사회자'의 말에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복종하고 있다.
- ③ '목소리'는 대중에 동조하지 않고 '그분'을 의심하는 비판적 인물이다.
 ⇒ '목소리'는 다른 군중들과 다르게, '그분'이 '신'인지 '유령'인지 물으며 합리적 의심을 하는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 ④ 다양성을 추구하려면 '사회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 '목소리'는 '군중'들과 다른 의견을 내었다가 '미치광이'이 취급을 받았다. '사회자'는 다양성을 저해하는 인물이다.

7. 다음<보기>에 나타나는 음운변동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핏는 - 핏는 - 핏른

- ① 교체, 비음화
- ② 교체, 유음화
- ③ 탈락, 비음화
- ④ 탈락, 유음화

정답: ④

먼저, 보기의 '핏는 - 핏는'에서 겹받침 'ㅌ'이 자음'ㄹ'만 남기고 'ㅌ'이 탈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겹받침의 한 자음만 남기고 다른 자음이 사라지는 것은 '탈락'현상.
 뒤에, '핏는 - 핏른'에서 '는'의 첫소리 'ㄴ'이 앞 음절 '핏'의 끝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ㄴ'이 유음인 'ㄹ'로 바뀌었으므로 '유음화'현상.

8.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사(生死) 길흔 이에 이샤매 머뭇그리고, ㉠나논 가늑다 말스도 묻다 니르고 가늑넛고, 어느 ㉡술 ㉢이른 부르매 이에 더에 뿌러딜 닙곤, ㉣흐든 가지라 나고 ㉤가논 곧 모드론더. 아야 미타찰(彌陀刹)아 맛보올 나 도(道) 닻가 기드리고다 「제망매가」

- ① ㉠: 시적화자인 '나'가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다.
- ② ㉡: 누이가 요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혈육임을 알 수 있다.
- ④ ㉣: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정답: ①

① ㉠ : 시적화자인 ‘나’가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다.

⇒ 이 시는 작가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쓴 향가이다. ‘간다’는 말도 못하고, (저승으로) 가버린 이는 ‘시적화자’가 아닌 ‘죽은 누이’이다.

② ㉡ : 누이가 요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뭇가지의 ‘잎’에 죽은 누이를 비유를 하였다. 즉, ‘바람에 떨어진 잎’은 ‘생명을 잃은 누이’를 의미하는데, 그 잎이 ‘이른 (일찍)’ 바람에 떨어져 버렸으므로, ‘이른 죽음’으로 해석하여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 :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혈육임을 알 수 있다.

⇒ ‘죽은 누이’와 ‘시적화자’가 ‘한 가지’에 났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한 가지=한 부모’로 그들이 혈육지간임을 알 수 있다.

④ ㉣ :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 ‘죽은 누이’가 어디로 간 지 알 수가 없어 무상감과 허무함, 슬픔 등을 느끼는 표현이다. 삶과 죽음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느낄 수 있다.

9. 다음단어의 표준발음이 맞는 것은?

① 상견례[상견네]

② 훑다[훑따]

③ 폭발음[폭바름]

④ 뛰어[뛰여]

정답: ④

① 상견례[상견네] ⇒ [상견네]

② 훑다[훑따] ⇒ [훑따]

③ 폭발음[폭바름] ⇒ [폭빠름]

④ 뛰어[뛰여] ⇒ [뛰어], [뛰여] 모두 표준발음으로 인정

10. 다음 ㉠~㉣중에서 점순이에 대한 ‘나’의 호감이 비유적으로 드러난 표현은?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두 아니고, 꼭 내 안해가 돼야 할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년이 아랫니까 올해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흰칠히들 크건만 이건 우아래가 몽툭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쥔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현대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시니 없이들 까분다고 하지만) 너머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다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앓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김유정, 봄.봄

- ① ㉠개떡 ② ㉡감참외 ③ ㉢밥술 ④ ㉣돌

정답: ②

- ① ‘개떡’은 점순이를 비유한 말이 아니다.
 ② ‘나’는 점순이의 생김새가 ‘감참외’같다고 직유법을 사용하여 말하였다. ‘감참외’는 ‘나’의 생각에 참외 중 제일 맛있고 예쁘다 하였기 때문에 점순이에 대한 ‘나’의 호감의 표현이다.
 ③ ‘밥술’은 점순이를 비유한 말이 아니다.
 ④ ‘돌’은 점순이를 비유한 말이 아니다.

11. 다음은 어떤 자음에 관한 설명이다. 이 자음이 나타나는 단어를 찾으면?

- 예사소리이다.
 -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 여린입천장에서 나는 소리이다.

- ① 국밥 ② 사탕 ③ 낭만 ④ 해장

정답: ①

조건1>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

조건2>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열음을 말한다. ㄱ, ㅋ, ㆁ, ㄷ, ㅌ, ㅈ, ㅊ, ㅍ

조건3> 여린입천장소리: ㄱ, ㅋ, ㆁ, ㅇ

12. 다음에 관한 예시로 적절한 것은?

- ㉠ 니서쓰기: ㅇ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서쓰면, 입시울 가비야븐소리 드외느니라.
 ㉡ 골박쓰기: 첫소리를 어울워뿔디면 골박쓰라.

- | | ㉠ | ㉡ |
|---|----|-------|
| ① | 벌 | 꺾술 |
| ② | 수비 | 뻘 |
| ③ | 꿈 | 더벼 |
| ④ | 뿌매 | 썩르미니라 |

정답: ②

㉠ 니서쓰기: 입술 소리 아래에 ‘ㅇ’을 이어쓰는 것이므로, ‘세로로 나란히’ ⇒ 땡, 붕, 풍

㉡ 골박쓰기: ‘가로’로 자음을 나란히 ⇒ 뽕, 뽕, 뽕, 뽕, 뽕, 뽕, 뽕, 뽕, 뽕, 뽕

13. 다음 조건에 맞는 문구를 올바르게 찾은 것은?

- [1] 대구법과 대조법을 사용할 것
 [2] 투표에 참여할 것을 간접적으로 권유 할 것
 [3] 현재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낼 것

- ① 당신의 소중한 한 표, 당신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② 지역 사람을 뽑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뽑겠습니다!
 ③ 찍을 사람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찍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④ 정책에 불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투표로 말하세요.

정답: ③

- ① 대구법, 대조법이 쓰이지 않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없다.
 ② 지역감정의 비판일 뿐, 투표에 대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③ 대구, 대조, 투표에 대한 간접적 권유,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
 ④ 대구, 대조가 쓰이지 않았고, 투표를 하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14.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없는 것은?

감자 칩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과자다. 감자 칩의 인기요인을 생각해 보면 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감자 칩이 인기 있는 까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삭한 음식이라는 점이다. 음식의 식감에 대해 과학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정 바삭한 음식이 가져야 할 몇 가지 필수조건들을 정리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은 그중 제일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그냥 시끄럽기만 해서는 충분치 않다. 알다시피 뜨거운 수프를 먹는 사람들이나 버터에 적신 촉촉한 아티초크를 음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큰 소리를 내게 마련이지만, 그들이 몰두하고 있는 음식들을 바삭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바삭한 음식이라면 훨씬 높은 음역의 소리를 내야 한다. 고주파의 파열음을 발생시켜야 하는 것이다. 저주파의 낮은 음을 발생시키는 음식은 으드득거리거나 후루룩거리게 할 뿐 파삭거리게 하지는 못한다.

- ① 감자 칩은 바삭한 음식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감자 칩의 바삭한 소리는 고주파의 파열음을 발생시킨다.
- ③ 감자 칩의 식감에는 소리의 음역대가 영향을 미친다.
- ④ 뜨거운 수프나 아티초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삭한 음식을 좋아한다.

정답: ④

④ ‘뜨거운 수프나 아티초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삭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내용은 글에 나오지 않았다.

15. 다음 글을 쓰기 위해 구상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얼마 전 지하철역에 심정지로 쓰러져 있던 70대 노인을 지나가던 중학교 학생이 구한 일이 있었다.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위급한 순간 이 학생이 신속하게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여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설명하였다. 이처럼 심폐 소생술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이다. 하지만 한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일반인들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폐 소생술 시행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이론으로만 배웠을 뿐 실습의 기회가 적어 위급한 환자를 위해 이를 직접 시행하기에 꺼려진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한다. 심폐 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이를 시행한다면 위급한 환자를 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심폐 소생술 교육 방법의 개선과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마지막에서 주장을 다시 강조하자.
- ②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자.
- ③ 심폐소생술의 방법과 과정을 설명하자.
- ④ 현실을 적용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자.

정답: ③

- ① 마지막 밑줄 부분에서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 ② 중학생이 노인을 살린 사례가 앞부분에 실려 있다.
- ③ 심폐소생술의 방법과 과정을 설명한 적이 없다.
- ④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응급처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시행하지 못한다.

16. 다음 중 안긴문장이 아닌 것은?

- ① 희야는 키가 크다.
- ② 나는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 ③ 희야는 숙이와 달리 달변가이다.
- ④ 나는 나만의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산다.

정답: ④

- ① 희야는 키가 크다. ⇒ 서술절이 안긴문장
- ② 나는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 관형절이 안긴문장
- ③ 희야는 숙이와 달리 달변가이다. ⇒ 부사절이 안긴문장
- ④ 나는 나만의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산다.

17. 다음시의 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둔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귀천

- 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삶에 대해 달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③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죽음을 초월하여 허무함을 내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정답: ③

- ① 삶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에 비유하는 데서 알 수 있다.
- ② 하늘로 돌아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다는 데서 알 수 있다.
- ③ 과거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반성적인 태도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시는 삶과 죽음이 단절이 아닌, 하늘에서 잠시 소풍으로 이승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하나의 연장선에 두고 있으므로, 담담하게 죽음을 초월하여 내적으로 승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다음 시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화우 흠뿌릴제 울며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계랑의 시조

- ①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다.
- ② 대립적인 상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③ 인물의 과거 회상이 드러난다.
- ④ 장면을 전환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이완하고 있다.

정답: ①

- ① 배꽃 떨어지는 봄에 이별하여 낙엽 떨어지는 가을까지 임을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다.
- ② 임과 이별한 하여 그리워하는 마음이 해소된 적이 없다.
- ③ 과거회상 장면이 드러난 적이 없다.
- ④ 장면전환이나 긴박한 분위기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이완된 적도 없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손이 주옹에게 묻기를,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돈이 없고, 진리 노릇을 한다 하자니 물 가운데만 있어 왕래가 없구려. 변화불측한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 가없는 만경을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 놀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과 혼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싸여 명이 지척에 있게 될 것이로다. 이는 지극히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거늘,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물에 떠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재미인가?”하니, 주옹이 말하기를 “아아, 손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잡기와 느슨해짐이 무상하니, 평탄한 땅을 디디면 태연하여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서두르는 법이다. 두려워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하게 살지만, 태연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나니,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꼴이 없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뒤집히지도 않아 내 배의 평온을 지키게 되나니, 비록풍랑이 거세 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또, 무릇 인간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 것 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한 잎 조각배로 만 리의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가 배에서 사는 것으로 사람 한 세상 사는 것을 보건대, 안전할 때는 후환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손은 어찌 이로써 두려움을 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 하는가?

하고, 주옹은 뱃전을 두들기며 노래하기를,

[A] “아득한 강 바다여, 유유하여라.

빈 배를 띄웠네, 물 한 가운데에.

밝은 달 실어라, 홀로 떠가리.

한가로이 지내다 세월 마치리.”

하고는 손과 작별하고 간 뒤, 더는 말이 없었다.

-권근, 주옹설(舟翁說)

19. 윗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삶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질문을 하고 답하는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 ③ 경전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다.
- ④ 글의 마무리에 노래를 이용하여 여운을 남긴다.

정답: ③

- ① 위태로운 배 위의 삶이 더 안전하다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이고, 그 안에 늘 조심하며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 ② 이 글은 손의 질문과 주옹의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경전 구절이 인용된 적이 없다.
- ④ 직설적 표현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노래로 마무리 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20. [A]와 유사한 삶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은?

- ①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낙시 드리오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②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타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③ 눈마저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턴고
구불 절이면 눈 속의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 ④ 청산은 어찌하야 만고에 프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야 주야에 굷디 아니한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 호리라

정답: ① [A]는 자연과 함께하는 무욕의 경지를 드러내는 노래이다.

- ①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낙시 드리오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고기를 낚기 위한 낚시가 아니다. 무심(욕심없는)한 달빛만 싣은 ‘빈 배’를 통해 무욕의 삶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라 하더면 가라마는 제 구타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임과 이별한 후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③ 눈마저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툰고

구불 절이면 눈 속의 프를소냐

아마도 제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는 내용이다.

④ 청산은 어찌하야 만고에 프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야 주야에 굽디 아니한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 호리라

⇒ ‘청산’과 ‘유수’의 변함없는 모습을 본받아 학문수양에 정진하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다.